즉시 배포용: 2015년 12월 8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연휴 기간 동안 대량 수송 시설 및 서비스의 보안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하다

이 행정명령으로 뉴저지 및 코네티컷에서 뉴욕으로 연결하는 열차, 버스, 페리 및 기타 대량 수송 시설에 대한 법집행 관할권을 승인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행정명령 148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뉴저지 및 코네티컷 법집행 기관에게 뉴욕의 대중 교통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뉴저지와 코네티컷 두 주의 보안 및 반 테러리즘 관리들은 뉴욕이 전통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였던 지역의 공공안전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한 연휴 시즌이 한창인 지금 우리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위협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뉴저지와 코네티컷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은 대량 수송 네트워크에 대한 순찰을 돕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여행객들이 연휴 기간 내내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보내기를 촉구합니다."

Chris Christie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테러 공격과 위협이 신경 쓰이면서 서구가 급진적인 이슬람으로부터 직명하고 있는 위협을 모든 미국인들이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로서 저의 제일의 가장 엄숙한 책임은 우리 주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저지와 그 지역의 주민 및 중요 인프라를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Dannell Malloy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일 여행자들의 안전과 안보는 최우선 사항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연휴 시즌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필요한 모든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휴 시즌은 테러 공격의 경계태서와 위험이 한껏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십만 명의 통근자들이 주간(inter-state) 열차, 버스 및 페리를 포함한 대량 운송 수단을 이용해 매일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력 증대 배치 및 전반적인 법집행 활동으로 이 지역의 정부들은 공공안전을 보호하여 통근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늘 발효되며 30일동안 유효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